

#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 특집

- 03 도미타 코지 주대한민국 일본특명전권대사 인터뷰  
한국 정부 · 국민의 코로나19 방역노력에 경의
- 07 일한 외교장관 전화회담

## 대사관 관련

- 08 JENESYS2019 한국청년방일단  
Cool Japan! 일본 지역활성화의 현장과 양국 교류

## 일한 관계

- 12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 쿠마가이 켄 인터뷰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일본 술
- 16 [기고] 겐지모노가타리의 세계(현대를 살다)  
일본을 대표하는 히카루 겐지

## 일본 사정

- 20 트렌드 앤 트렌드  
변화하는 도쿄의 풍경, 시부야역 주변 개발 프로젝트
- 24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아름다운 호수 위의 쉼터, 홋카이도 미치노에키
- 28 일본의 계절을 걷다  
벚꽃을 따라 교토를 걷다

## 일본 문화

- 32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 건축가  
공원 같은 건축을 설계하는 일본의 건축 그룹 SANAA
- 36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찾아서  
교토의 소소한 풍경을 담은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 공보문화원 광장

- 40 집에서 손쉽게! 일본의 가정요리  
초여름 밥상
- 42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  
일본문화원 리포터 5기 활동을 마치며
- 43 설문조사 협력 의뢰

##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 44 부릉부릉 야마구치 원데이 버스 투어



### 표 지

큰 녹나무 향기(大きなクスノキの香り)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 Nikon상  
Photo : CHUNG DONGHUN

통 권 568호 계간지  
(2019년 봄호부터 계간지 발행)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 한국 정부 · 국민의 코로나19 방역노력에 경의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는 8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미타 대사는 또 “한국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국민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정말 큰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본, 한국 양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도미타 대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지난해 12월 부임 이후 처음이다. 도미타 대사는 주한대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로 ‘낙관주의’와 ‘인내심’을 꼽으며 “두 가지 요소를 마음에 담고 앞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대사관저에서 진행됐다. 도미타 대사는 한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일주일에 이를 정도는 관저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인터뷰 전 “양국 간 오랜 역사와 교류의 상징”이라며 관저에 전시된 일본의 도자기 명가 심수관(沈壽官)가의 14대 심수관이 빛은 도자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다음은 도미타 대사와의 일문일답.

## 부임 4개월이 지났다. 부임 소감과 주한대사로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4월에 외교관 인생 40년이 된다. 외교는 상대국에 대해 경의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게 두 번째다. 첫 번째 근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깊은 경의를 갖게 됐고 이 나라에서 다시 일하게 돼 대단히 행복하다.

한국은 일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다양한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상호 이해 촉진 등 두 가지 면에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일본과 한국 양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은 처음에 대구에서 큰 집단 감염이 발생해 많은 고생을 했지만,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 일한 양국은 각각의 노력과 더불어 이웃 나라로서, 또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감염증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

으며 (협력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양국이 협력해 위기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일본도 이런 문 대통령의 마음을 공유하며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사로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저는 주한대사로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낙관주의와 인내심이다. 두 가지 요소를 마음에 담고 앞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 한일 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한일 간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

양국 간의 협력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국외로부터 자국민의 대피에 대한 협력이다. 마다가스카르와 케냐, 필리핀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마련한 전세기에 일본인도 탑승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제3국에서 일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 든든하다.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이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일본계 기업 도레이첨단소재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고려해 3월 말부터 마스크 원재료인 소재의 생산 라인을 설립하고 하루에 마스크 650만 장에 해당하는 13t의 소재를 생산 중이다. 일본계 기업이 한국에서 감염 대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생산된 소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소비되는 마스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인에 대해서는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시선을 돌리면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다. 각국의 우선적인 과제는 감염증 확산 방지, 감염자 중증화의 저지이다. 감염 확대 방지 대책으로서 입국 제한을 어떤 형식으로든 완화하면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제안한(기업인 예외 입국) 부분은 감염 확대 움직임을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기업도 한국 방문 수요가 있을 텐데.

현재 많은 기업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각국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게 일본 기업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지난 3월 9일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사전에 한국에 통보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해 달라.

3월 9일에 강화된 조치가 중국과 한국에 도입된 것은 그 시점의 감염 상황과 (두 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 후 한국에 취한 것과 동등한 조치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적용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조치는 방역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그 외의 외교적 의도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이런 사항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당시 조치를 둘러싼 외교적 협의에 대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비상시이며 비상시에는 외교적인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과의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한일 간 인적 교류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나.

양국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반세기 이상에 걸쳐 교류를 착실히 발전시켜왔다.

코로나19는 인적 교류가 단기간에 급격히 줄었다는 점

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때가 되면 종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종식되면 양국 간 교류를 다시 확대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검사하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중증자만 검사하는 방식인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해 달라.**

한국의 경우 초기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초기에 큰 집단감염이 없었다. 오히려 검사를 위해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면 병원 안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어제 아베 총리도,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해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단기간에 선진적이고 뛰어난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검사는 WHO(세계보건기구)나 전 세계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일본 보도를 봐도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선진적인 노력을 매일같이 소개하고 있다. 특별입국 절차 도입이나 확진자 감염 경로 정보 공개 등의 방법도 각국이 배워야 할 감염 확대 방지 방법이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민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정말 큰 경의를 표하며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한일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도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체결을 위한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현시점에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협의 재개를 하자는 요청이 온 적이 없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선 일한 간 협의가 필요하다.

**강제 징용 문제가 난제다. 구상하고 있는 해법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한국의 총선을 1주일 앞둔 상황이다. 이런 타이밍에 개별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작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던 일한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현안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이다. 외교 당국 간 카운터파트와 전화, 화상 등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 징용 문제는 해법을 찾기 힘든데 압류된 일본 기업**



의 자산 매각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자산 매각이 현실화하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바로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정상이 합의한 바 있다.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노력하겠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도 지지부진하다. 일본이 소극적이며 일각에선 강제징용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가.

이 문제도 현시점에서 깊이 들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출 관리 문제는 당국 간에 현재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차원에서 공식·비공식 형식으로 상당한 횡수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으로선 한국 정부가 가진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난제로 한일 관계가 좋지 않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일이 협력한다면 다시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정상 간 통화나 외교장관 간 통화가 추진되고 있다.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나.

필요에 따라 전화 회담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생각이 있

다. 최근 일한중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고, G20 정상 회담에서도 한국과 같이 논의했다. 일본으로선 의사소통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기회가 있으면 할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중요한 것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정상의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북미 프로세스를 지지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변함없다. 일한, 일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것이라는 얘기에 한국 국민의 우려가 크다. 바다로 방류해도 안전한가. 우려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먼저 원전 오염수가 아니다. 처리수다. 처리수 취급에 대해 올해 2월에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처리수 처분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선택지로서 해양 방출과 수중기 방출 등 두 가지가 제안됐다.

일본 정부는 이 두 가지 제안을 받아 계속 검토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 어떤 방법이든 처리수를 처분할 때에는 재정화해 방사성 물질을 더 제거하고, 그 뒤에 더 희석해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대안이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해양 오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등 주변국의 불안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제 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IAEA 사무총장이 2월에 방일해 후쿠시마 제 1원전을 시찰하고,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리뷰했다. 일본 정부는 투명성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이 인터뷰는 4월 8일에 진행되어, 4월 9일에 게재되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2020년 4월 9일 자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일한 외교장관 전화회담

6월 3일 오전 11시 45분쯤부터 약 40분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대신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 전화회담을 가졌다.

1. 양 외교장관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또,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한 양국이 협력해 상대국의 재외 국민을 같은 비행기에 태워 이송하는 등의 협력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2. 양 외교장관은 일한 간의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는데, 특히 구한반도출신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모테기 대신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양 외교장관은 앞으로도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3. 모테기 대신은 일본의 수출 관리와 관련해, 어제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해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으로부터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4. 양 장관은 북한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일한, 일한미가 계속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확 인했다.

## Cool Japan! 일본 지역 활성화의 현장과 양국 교류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2019'의 일환으로 선발된 대학생단과 고등학생단이 9박 10일 일정(대학생 : 2020년 1월 29일(수)~2월 7일(금), 고등학생 : 2020년 2월 12일(수)~2월 21일(금))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대학생단의 테마는 '아오모리의 식품 안전성과 방재'였다. 대학생들은 일정 초반에 도쿄에서 호세이대학과 국제기독교대학을 방문하여 현지 학생과 양국 관계를 주제로 토론하는 등 심도 있는 교류를 했고, 일정 4일 차에는 아오모리현으로 이동하여 아오모리현의 산업과 지역 활성화의 현장을 시찰하고 미무라 신고(三村申吾) 아오모리현 지사를 예방했다. 또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아오모리현의 일반 가정생활을 체험하기도 했다.

고등학생단은 '한일교류의 역사와 평화에 대해서'라는 테마 아래 오사카와 교토, 히로시마현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에서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피폭자로부터 직접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고, 본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학생과 만나 교류할 수 있었다. 일정 4일 차에는 홈스테이를 체험했고 8일 차에는 쇼토엔을 방문하여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귀국 후, SNS 등을 통해 일본에서의 경험과 발견을 주변과 나누었다. 아래 주소에서 참가자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 Cool Japan 리포터 공식 네이버 카페(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는 Cool Japan 리포터)

<https://cafe.naver.com/youthexchangejkr>

##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이 인연이었다

유정연 국립한밭대학교 일본어과 3학년

**도쿄** 지난 1월, 외무성에서 주관하는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쿨재팬 리포터 자격으로 10일간 일본을 다녀왔다. 양국 관계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우리가 관계 개선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책임감을 안고 도쿄를 방문했다.

도쿄에서는 일본 청년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교류회에 참석한 일본 청년은 쿨재팬 리포터 못지않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양국의 정치 환경을 함께 안타까워했

다.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으며 그간의 선입견이나 편견의 벽도 허무는 시간이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교류회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이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다. 양국 관계의 이상향을 바라는 주제인 만큼 쿨재팬 리포터 뿐만 아니라 일본 청년도 각자의 의견을 열심히 발표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엇갈리는 주장을 풀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예를 들





어,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공동 제작을 위해 노력하거나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에서도 과장이나 억측으로 왜곡이 생겨나는 것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오모리** '사과의 본고장'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 사과 중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아오모리에서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아오모리현 지사님께서 직접 환대해 주셨으며, 일본 도호쿠 지방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를 기획하는 네부타 박물관에서 축제에 대한 열정과 단합력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2박 3일간의 홈스테이였다. 홈스테이 가족은 우리를 방학 중 할머니 댁에 놀러 온 손녀 반기듯 하셨다. 저녁도 함께 준비하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문화도 배울 수 있었다. 홈스테이 마지막 날 모두가 모인 교류회에서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보일 만큼 정이 많은 가족이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도호쿠 태평양 연안에 심각한 쓰나미 피해를 가져왔다. 아오모리 하치노헤시도 이 피해 지역 중 하나였다. 우리는 항구 체험학습관을 시찰하면서 그 당시의 아찔한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지금의 복구 상황과 비교해 보았다. 아오모리 시민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방재에 대한 노력이 느껴졌다. 일본은 9월 1일의 '방재의 날'로 제정되어 있고, 시민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항상 피난 장소를 확인해둔다. 가정에서는 위급할 때 들고 갈 배낭 등을 항상 준비해준다고 한다. 한국도 더 이상 재난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 만큼 이러한 경각심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클래픽 리포터 프로그램은 가는 곳마다 의미가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이었다. 그 만남을 기억하며 나는 앞으로 어떠한 무모한 도전도 두려움 없이 해 볼 것이다.



## 신뢰감을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소통

석환희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지난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는 청소년 교류사업 'JENESYS 2019'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인원이 절반가량 줄어 아쉬웠지만, 적은 인원이라 그런지 단원끼리 더욱 돈독해진 느낌이었다. '한국과 일본 교류의 역사와 평화에 대해'라는 주제로 연수에 참가해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 오카야마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주제에 걸맞은 히로시마 평화 미디어센터와 조선통신사 자료관인 쇼토엔(松涛園) 방문을 통해 양국 교류의 역사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일본인 대학생과 함께한 필드워크, 시내 탐방을 통해 활발히 교류할 수 있었다.

9박 10일간의 연수 중 2박 3일간의 홈스테이와 이쓰카이치 고등학교 방문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필드워크도 마찬가지지만 연수 활동을 통해 이렇게 직접적인 교류 활동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또 현지인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듯하다. 홈스테이 가족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나를 긴장하게 했지만, 대면식 후 밝고 친절한 모습에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첫째 날, 홈스테이 가정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의 풍경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어로 환영한다는 글과 함께 우리 이름을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놓은 걸 보고 크게 감동했다. 저녁도 신선한 회와 일본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다.

일본의 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홈스테이 가정을 소개하자면 다다미 20개가 들어갈 크기로 2명이 이 방을 전부 써도 될까 싶을 정도로 큰 방이었다. 또 절이 딸려있어 집 자체가 매우 커서 밤에 나가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고, 걱정 없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일본의 시골 풍경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는데, 목장의 드넓은 초원에서 만끽한 공기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재미있었던 점은 홈스테이 내내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편의점도 자동차로 10분이나 걸린다는 말을 듣고 무척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 걱정과는 반대로 음식을 직접 만들고, 간식도 손수 챙겨주셔서 배고픈 기억이 없었다. 2박 3일 동안 챙겨주신 아주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다.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이쓰카이치 고등학교 방문 프로그램도 기억에 남는다. 고등학생이란 신분으로 또래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한다. 환영식 후 짧은 인사를 나누고 끝말잇기 같은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는데, 게임 도중에도 친구들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에 배려심이 느껴져 감동했었다. 일본인 친구의 세심한 면모가 잘 느껴졌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었는데, 학교로 도시락을 준비해 와 교실에서 먹는 문화가 매우 신선했다. 또 식사 도중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일



본인 친구의 일상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 문화를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와 교류를 나누는 친구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잘 알고 있었는데, 한국 아이들을 좋아하는 친구도 많아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며 더욱더 친해질 수 있었다.

점심 후 교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디베이트가 진행되었다. 시작하기 전 설렘과 걱정스러운 감정이 동시에 오갔는데,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고, 모르는 단어도 전부 조사해서 발음 기호를 적어갔다. 우리 조는 양국 스포츠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주제였다. 디베이트가 시작된 후 친구 앞에서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하는데, 서툰 발표에도 나와 눈을 맞추며 경청해주고 모르는 단어도 몸짓으로 알려주려는 모습을 보고 몹시 감동했다. 각자의 의견 발표가 끝나고, 내용을 정리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으로 하는 일본어 발표라 많이 긴장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끝나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디

베이트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작별을 아쉬워하며 SNS 아이디도 교환하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래 친구를 사귀고 일본의 고등학교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나라인 일본을 이번 교류 프로그램 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는 무작정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삿대질해도 되는 것일까? 양국 관계가 점점 악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 나는 이번 연수 주제인 ‘한국과 일본 교류의 역사와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어떻게 하면 양국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비판이 아닌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본 현지인과의 소통으로 궁금했던 것은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도 표현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한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온라인 술자리’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준비해, 라인(LINE) 등의 앱을 통해 자택에서 술자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술을 즐기는 방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해가는 술 문화 속에서 어떤 술을 골라야 할지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본지에서는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일본 술’의 매력을 전하고자 다음 호부터 일본 술에 대한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 일본 술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쿠마가이 주류주식회사의 쿠마가이 켄(熊谷謙) 대표님께 짧은 인터뷰를 청해 보았습니다.

### 한국에서 일본 술을 취급하게 된 계기는.

2009년 여행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엇보다 일본식 이자카야(居酒屋)가 많은 데 놀랐습니다. 일본어로 쓰여진 술집 간판들이 즐비했고 가게마다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일본 음식을 선보이는 가게가 그리 많지 않았고 캐주얼한 이자카야가 많았는데, 그런 가게에서도 일본에서 수입한, 소위 말하는 ‘SAKE’를 마시는 손님이 많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술이 일본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상품들이었지요. 실제로 직접 주문해 마셔 보니 ‘역시’였어요. 메뉴에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소주(芋焼酎)가 있어 주문해 봤더니, 어째서인지 청주용 도쿠리

### 韓国にて日本のお酒を扱お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

2009年に初めて旅行で韓国を訪れた際に、まず日本式の居酒屋の多さに驚きました。日本語で店名が書かれた看板が立ち並び、どのお店も多くのお客様で賑わっていました。当時は本格的な日本料理を提供するお店はそれほど多くはなく、カジュアルな居酒屋が多かったのですが、そうしたお店でも日本から輸入された「SAKE」を飲むお客様が多かったのが印象的でした。

ただ、ほとんどが日本では一度も見たことのないような銘柄のお酒ばかり。実際に自分で注文して飲んでみると、ちっとも美味しくない。大好きな芋焼酎をメニューで見つけて注文しても、なぜか徳利とお猪口(※日本酒を飲む際に使用する酒器)

(술병)와 오초코(술잔)가 같이 나오더군요. 직원에게 어떤 술인지 설명을 부탁해도 당연하다는 듯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가게 안의 손님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그런 술을 주문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일본의 맛있는 술의 매력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이질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자신 역시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맛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가까운 존재였던 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후로 쪽 일본에서 술을 사다 마시고, 한국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맛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술의 제조법부터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10년이 넘은 지금도 공부 중입니다. 그 후 여러차례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결국 거처를 한국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마시고 싶은 일본 술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직접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 쿠마가이 켄 대표가 생각하는 일본 술의 매력은.

일본 내 니혼슈(日本酒, 일본 청주)의 종류는 1만 종이 넘고, 본격 소주와 아와모리(오키나와산 쌀로 만든 소주)는 합해서 5천 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혼슈와 본격 소주, 아와모리 모두 생산지의 기후와 식문화, 생활 습관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명산물



일본 술 빚기 체험, 2박 3일간 일본 술 빚기 기초 배우기



니가타를 대표하는 핫키이산 관계자와 함께, 양조장과 신뢰가 두터운 쿠마가이 주류

が一緒に出てくる始末。店員さんにお酒の説明を求めても、当然のように「分かりません」との回答。それでも、お店に来ていたお客様は何の疑問も持たずにそれらのお酒を注文して飲んでいました。その時に感じたのが「日本の美味しいお酒の魅力がちゃんと伝わっ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漠然とした違和感でした。

同時に、自分は日本人なのに日本のお酒についての細かい知識がほとんど無いことにも気が付き、それを恥ずかしく思いました。当たり前のように美味しいお酒が飲める環境にいたからこそ、身近な存在であるお酒について深く考え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す。

それからはひたすら日本からお酒を買って来ては飲み、韓国人の友達に少しでも美味しさを説明できるように、お酒の造り方から自分なりに勉強しました。10年以上経った今でも勉強中です。その後、何度も旅行で韓国を訪れるたびに韓国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くなり、とうとう生活の拠点を韓国に移しましたが、飲みたいお酒が韓国では簡単には手に入らないので、自分で輸入会社を設立するに至りました。

### 熊谷代表の考える日本のお酒の魅力とは。

日本には、日本酒は1万種類以上、本格焼酎と泡盛(沖縄特産米焼酎)は合わせて約5千種類以上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日本酒も本格焼酎も泡盛も、生産地の気候や食文化、生活習慣と大きな関わりを持っています。各地域の名産品や特産品

이나 특산물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술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일본 술을 마시는 매력의 하나라 할 수 있지요.

또, 니혼슈의 경우는 다른 술과 달리 원료인 쌀에서 유래하는 감칠맛 성분이 풍부해 다양한 요리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갑게, 상온에서, 따뜻하게 다양한 온도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다른 술과 다른 니혼슈만의 매력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아쓰칸(熱燗)은 그야말로 최고라 할 수 있지요.

### 세계 시장과 비교해 일본 술 시장으로서의 한국 시장의 매력은.

잘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2019년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술의 수출량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 3위입니다. 그만큼 일본 술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이므로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일본의 양조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면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관광 교류도 활발할뿐더러 한국 분들은 일본인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로 만든 막걸리를 일상적으로 마시듯이 쌀로 만든 니혼슈에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의 증류주 소비량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지요. 이를 감안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본격 소주나 아와모리 같은 증류주 시장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 내 니혼슈와 본격소주, 아와모리의 상황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위나 각테일, 하이볼 등의 다양한 알코올 음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전에 비해 니혼슈나 본격 소주, 아와모리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 30대의 젊은 장인들이 운영하는 양조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감성으로 만들어진 술 또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 일본과 한국 양국의 술 문화 차이는.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또는 신나게 즐기

고,それに合う様々なお酒が楽しめるというのが、日本のお酒を飲む際の魅力の一つだと思います。

また、日本酒の場合は、他のアルコールとは違い、原料のお米由来の旨味成分が豊富に含まれており、あらゆる料理の味を引き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

さらに、冷たい状態、常温、温めて、とあらゆる温度帯で楽しめるのも、他のお酒には無い日本酒ならではの魅力ですね。寒い冬に飲む熱燗(温かい日本酒)は最高です。

### 世界の市場と比較して、日本のお酒の市場としての韓国市場の魅力は。

御存知ない方も多いのですが、日本から韓国への日本酒の輸出量は、アメリカと中国に次いで実は世界第3位です(2019年統計)。それほど日本のお酒の需要がある国ですので、まだ韓国に輸出されていない日本の蔵元の方々も、積極的に韓国市場へ進出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ね。

日本と韓国は距離的にも近く観光面での交流も盛んですし、韓国の方は日本人と同じくお米を主食としていますよね。お米で造ったマッコリが日常的に飲まれるように、お米で造る日本酒にもあまり抵抗がないのだと思います。

また、韓国での蒸留酒の消費量は世界的にもトップクラスです。そう考えると、日本の本格焼酎や泡盛といった蒸留酒の市場も、無限の可能性を秘めていると個人的には考えています。

### 日本における日本酒や本格焼酎・泡盛の状況は。

日本では、若者の間でサワーやカクテル、ハイボールなど様々なアルコール飲料が飲まれるようになり、以前に比べると日本酒や本格焼酎や泡盛の消費量が減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ています。ですが、最近では20代や30代の若き杜氏(とうじ:製造責任者)の方がお酒を造る蔵元も増えてきました。これまでとは違った新しい感性で造られるお酒も増えていきますし、今後がますます楽しみです。

### 日韓の酒文化をどう見るか。

韓国では「仲間と語り合うため・楽しく盛り上がるため」にお酒を飲む感覚でしょうか。私も韓国人の仲間と真剣な話をする時、または楽しく盛り上がるために韓国のソジュを飲む機会も

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한국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나 신나게 즐기고 싶을 때는 한국 소주를 마시곤 하지요.

반면 일본에서는 '술=요리에 맞춰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음식에 맞춰 술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건 다 똑같겠지요.

### 요즘 일본의 술 트렌드는.

최근에는 과일처럼 풍부한 향이 나는 니혼슈도 늘고 있는데, 예전처럼 도쿠리와 오초코로 마시는 대신 와인 잔이나 니혼슈 전용 글라스로 즐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니혼슈도 많습니다. 본격 소주와 아와모리를 주재료로 다양한 칵테일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비해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한국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니혼슈'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니혼슈는 쌀을 주재료로 만드는데, 최근에는 멜론과 머스켓, 사과, 배 같은 과일 향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니혼슈도 많습니다. 와인처럼 향을 즐기면서도 와인으로는 느낄 수 없는 쌀의 풍미와 온도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자아내는 니혼슈를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수입할 때 붙는 세금 때문에 한국에서 마시는 니혼슈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도 600여 종의 니혼슈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에게 맞는 니혼슈를 찾아 즐겨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호부터 일본의 술에 관한 칼럼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 저자 소개

쿠마가이 켄 쿠마가이주류주식회사 대표

2011년부터 한국에서 니혼슈, 본격 소주, 아와모리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주류전시회 'SEOUL SAKE FESTIVAL'의 주최 단체인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손님들로 붐비는 Seoul Sake Festival

あります。

日本では「お酒＝料理に合わせて楽しむもの」という認識があり、食べる物によってその時に飲むお酒を選ぶことが多いですね。

日本でも韓国でも、「お酒は人を幸せにする」という点は共通していると思います。

### 最近の日本での日本酒トレンドは。

最近では果物のような華やかな香りのする日本酒も増えており、以前のように徳利とお猪口ではなく、ワイングラスや日本酒専用のグラスで楽しむことも多くなってきました。和食だけではなく、洋食にも合わせやすいタイプの日本酒というのもたくさんあります。本格焼酎や泡盛をベースとした様々なカクテルもつくられるようになり、これまで以上に飲み方も多様化してきています。

### 韓国の方々に伝えたい「日本酒」の美味しい飲み方は。

日本酒はお米を原料にして作られているのですが、最近ではメロンやマスカット、リンゴや梨のようなフルーティーな香りを楽しめる日本酒もたくさんあります。ワインのように香りを楽しみながら、ワインにはないお米の旨味、また温度帯によって様々な表情を見せる日本酒をお楽しみ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残念ながら輸入の際にかかる税金の関係で、韓国で飲む日本酒はどうしても高くなってしまっていますが、現在では600銘柄以上の日本酒が輸入されています。是非、自分に合った日本酒を見つけていただきたいです。

次号より、日本のお酒に関するコラムを連載予定です。どうぞお楽しみに。

# 일본을 대표하는 히카루 겐지 光源氏

임찬수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교수



무라사키 시키부 ©Manga Designers Lab/a.collectionRF

지난 2월, 『종이달』, 『8일째 매미』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소설가 가쿠타 미쓰요(角田光代) 씨가 5년 동안 작업한 『겐지모노가타리』의 현대어 번역판이 완간되었다. 일본 고전문학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겐지모노가타리』는 이미 일본 유명 작가에 의해 여러 차례 다채롭고 독특한 문체로 번역된 바 있지만, 특히 이번에 출간된 가쿠타 미쓰요의 번역본은 작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토록 사랑받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매력은 무엇인지 일본 고전문학에 정통한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임찬수 교수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4월부터 일본 NHK에서는 <좋아요 히카루 겐지 군(いいね!光源氏くん)>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헤이안(平安) 시대의 귀족인 히카루 겐지가 현대 사회로 타임슬립해 문명사회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재밌게 그리고 있다. 새로운 문명을 접할 때마다 와카(和歌)를 짓는 모습 또한 귀엽고 흥미진진하다. 이외에도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천년의 사랑 히카루 겐지 이야기(千年の恋 ひかる源氏物語)>와 <겐지모노가타리 천년의 수수께끼(源氏物語 千年の謎)>라는 영화로 상영되기도 하였고 다수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원문을 읽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읽으려고 해도 고어(古語)라 이해하지도 못하였으리라. 나 또한 처음에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 『아사키 유메미시』를 읽고 『겐지모노가타리』를 이해하였다.

일본 고전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접하고 히카루 겐지가 플레이보이라는 것과 멋진 외모와 좋은 집안의 자식이라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정도만 알았을 것이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왜 이 소설이 고전 중의 고전인지를 설명한다. ‘옛날 옛날에’라고 시작하는 다른 소설과 달리 오늘날의 현대 소설과도 같은 도입 부분 ‘어느 천황의 시대였는가’로 시작하는 파격적인 문장, 인간 심리 묘사, 와카와 산문의 조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사상, 헤이안 시대의 결혼관 등을 언급하며



아라시야마 모미지마쓰리의 겐지모노가타리 ©KOUJIT SUJOU/SEBUN PHOTO



우지바시와 무라사키 시키부상 ©HIDEAKI TANAKA/SEBUN PHOTO

역사적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영화를 보여주며 즐거리를 설명한다. 『겐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소재로 삼고 있는 전통 연극 노(能)를 소개하며 소설 속 여인들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 천 년 가까이 된 소설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의 주인공은 악당을 물리치고 공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영웅 서사물의 대표적인 장르이다. 그러나 일본의 소설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인공인 히카루 겐지는 이런 사회적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의 출신은 천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외국 사신의 점괘로 인해 신하로 격하되는 역경을 맞는다. 집안도 좋고 미남이고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이 남성은 수많은 여성과 염문을 뿌리며 근친상간, 어린이 유괴, 저주와 배신을 밥 먹듯이 행한다. 상대방 여성은 설렘과 동시에 기다림, 질투, 악령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윤리관에 비추어 보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나쁜 남자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무뚝뚝한 남성에게 더 끌리는 알 수 없는 사랑의 마법처럼 겐지는 모성애와 지켜주고 싶은 연정의 대상으로 그려진

다.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의 주인공 아리와라노 나리히라(在原業平)도 비슷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당시에는 시를 잘 짓고 귀족이면서도 영락(零落)한 모습의 소설 주인공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영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겐지모노가타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사회의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이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며, 단순히 멋지고 이상적인 남자 주인공이 활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주인공 히카루 겐지를 둘러싼 수많은 여성이 겪는 아련하고 애처롭고 허무한 감정들이 독자에게 이입되어, 함께 느끼고 동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쿠조 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는 황태자비였다. 프라이드가 강하고 기품이 있으며 특히 서예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아마 황태자인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천황의 자리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당연히 로쿠조 미야스도코로도 황후로서 여생을 당당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녀의 운명에 불행의 그림자가 비치게 되었다. 7살이나 어린 겐지의 프로포즈에 기뻐할 수도 없고 거절도 못 하는 낙망한 처지에, 겐지에게 매달리거나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겐지모노가타리 우지10첩(교토 우지시)  
©Kouichi Sudou/SEBUN PHOTO

당당히 교제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에 직면한다. 그녀도 시(和歌)를 통해 '눈물에 소매가 젖을 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랑에 빠지는 자신이 슬프다' 라고 노래하듯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성으로 억제할 수 없는 그리움에 울고 있다. 게다가 겐지의 본처인 아오이노 우에(葵の上)와 아오이 마쓰리(葵祭)에서 자리다툼이 일어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 강한 자의식과 집착이 그녀를 모노노케라는 원령(怨靈)으로 변하게 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지에 이른다. 질투와 정념(情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주인공인 무라사키노 우에(紫の上)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겐지는 후지쓰보노 미야(藤壺の宮:히카루 겐지의 친부인 황제의 후처이며 히카루 겐지의 계모, 히카루 겐지의 첫사랑의 상대)를 그리워한 나머지 무라사키노 우에를 그녀의 대용품로 키우고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었다. '얼굴과 머리 모양을 보니 옛날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 회상하는 겐지에 게서 무라사키는 후지쓰보의 대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겐지를 향한 많은 여성의 시선과 마음이 오히려 『겐지모노가타리』를 읽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작품이 고전 작품 중에서도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끊임없는 현대어 번역 출판

『겐지모노가타리』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이상 원문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만화로 읽던가 현대어 번역본 또는 영화로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겐지모노가타리』를 지금도 새로운 작가가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가쿠타 미쓰요(角田光代). 그는 『8일째



무라사키 시카부 공원 ©Kouichi Sudou/SEBUN PHOTO



로잔지 겐지 정원의 무라사키 시키부 저택 터 비석(교토 교토시) ©Kouichi Sudou/SEBUN PHOTO

매미(八日目の蟬)』라는 소설로 유명하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가 『겐지모노가타리』를 번역했다고 한다. 사실 『겐지모노가타리』는 전 세계 33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물론 한국어 번역도 있다. 일본 문학의 보물이라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꾸준히 번역되고 있다. 왜 새롭게 번역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현대 일본어로 번역한 작가들을 살펴보면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엔지 후미코(埴地文子), 다나베 세이코(田辺聖子), 세토우치 자쿠초(瀬戸内寂聴)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어 번역으로는 아더 웨일리(Arthur Waley), 에드워드 사이텐스티커(Edward G. Seidensticker) 등이 유명하다. 학계에서는 엔지 후미코의 번역과 요사노 아키코의 번역 문장을 비교하며 전자의 번역은 심리 묘사가 뛰어나고, 후자는 간결한 문체에 주어가 명확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또한 웨일리의 영문 번역은 정확한 문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와카는 산문처럼 번역이 되었다. 반면 사이텐스티커의 번역은 간결하고 템포가 있으며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원전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출간된 가쿠타 미쓰요의 번역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번역자에 따라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이 달라지는 않겠지만, 세부적인 묘사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가쿠타의 번역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 저자 소개

**임찬수**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교수

『겐지모노가타리-일본 고전문학의 최고봉』의 저자로, 대학에서 일본 고전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해당 저서를 통해 『겐지모노가타리』의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한국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시라히게 신사의 무라사키 시키부 시가(시가현 다카시마시) ©Kouichi Sudou/SEBUN PHOTO

# 변화하는 도쿄의 풍경 시부야역 주변 개발 프로젝트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1964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시부야가와(渋谷川)강을 덮어 전철역과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이후 2008년 지하철 후쿠토신선(副都心線) 개통과 2013년 시부야역과 다이칸야마(代官山)역 간의 도큐도요코선(東急東横線) 철도가 지하로 이동하면서 시부야가와를 다시 흐르게 하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시부야역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도큐(東急) 철도의 도큐 그룹이 중심이 되어, 도큐 그룹이 진행하는 9개의 건축, 타 기업과

시부야가 진행하는 개발이 한창이다. 2020년 현재 시부야 히카리에(渋谷ヒカリエ, 2012), 시부야 캐스트(渋谷キャスト, 2017), 시부야 브릿지(渋谷ブリッジ, 2018), 시부야 스트림(渋谷スリーム, 2018), 시부야 소라스타(渋谷ソラスタ, 2019), 시부야 후쿠라스(渋谷フクラス, 2019),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渋谷スクランブルスクエア, 2019) 등이 개발되었으며 2027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도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



히카리에와 재개발로 지하로 옮겨질 간자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8



히카리에에서 본 시부야역 재개발 모습

해, 용적률 제한을 낮추고 초고층 빌딩을 올렸으며 각 건물과의 연결로 이동 동선의 최적화를 구상하고 있다. 상업, 업무, 주거, 숙박, 문화, 레저 등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시부야에 모아 공유하고 있어 라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일본의 기업이 다시 시부야를 찾고 있으며 도쿄의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 시부야 히카리에

시부야 히카리에(渋谷ヒカリエ)는 시부야에 빛을 비춘다는 의미로 2012년 시부야 재개발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지상 34층 지하 4층의 고층 건물로 라인의 본사가 이곳에 있다. 상업시설로는 도큐백화점 ShinQ, 카페 & 레스토랑인 Dining 6, Table 7이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서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8, 히카리에 홀, 뮤지컬 극장 도큐 씨어터 오브 등이 있다.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8은 시부야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발굴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기획의 전시와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 시부야 스트림

시부야 스트림(渋谷ストリーム)은 2018년 복원한 시부야가와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시부야역 남쪽의 지상 35층 지하 4층의 고층 건물이다. 역, 오피스, 호텔, 공연장, 레스토랑, 스포츠시설, 상업시설 등 건물 자체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기능을 한다. 오피스는 구글 재팬이 사용하고 있으며 오피스 구성원은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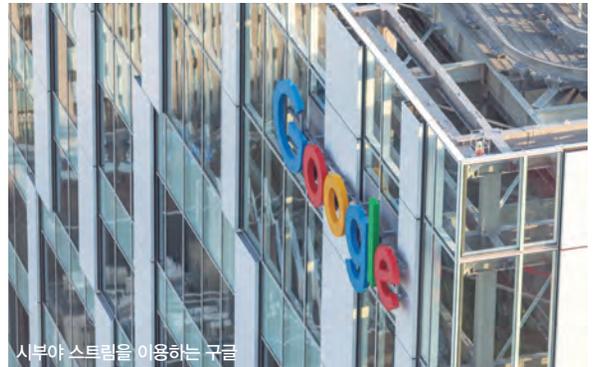
시부야역과 거리처럼 바로 연결되는 시부야 스트림



복원한 시부야가와강과 시부야 스트림 광장



시부야 스트림 안의 호텔



시부야 스트림을 이용하는 구글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의 공유 오피스



시부야 스카이의 전망

시부야가와강이 보이는 1층 광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2, 3층에는 음식점과 상점이 모여 있어 마을의 거리 같은 느낌이 든다. 시부야에 새롭게 들어서는 고층 건물은 의식주는 물론 교통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각 건물이 하나의 마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渋谷スクランブルスクエア)는 시부야역과 바로 연결되는 복합 상업 시설의 마친루로 지상 47층, 지하 7층, 높이 229.71m로 현재 시부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동관, 중앙동, 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동관이 먼저 개장했고, 서관과 중앙동은 2027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서 13층까지는 상업시설과 레스토랑이 17~44층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본 기업과 공유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최고층은 전망 시설인 시부야 스카이(SHIBUYA SKY)로 옥상이 개방되어 있어 시부야 주변과 도쿄의 전망이 한 눈에 펼쳐진다. '교류를 통한 새로운 탄생이 세계로'를 콘셉트로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 시부야 파르코

시부야 파르코(渋谷PARCO)는 시부야 스페인자카(언덕) 위의 상업 시설로 지상 19층, 지하 3층의 복합 상업 시설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193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건물 10층의 옥상 정원까지 건물을 빙 둘러가며 오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패션, 아트 & 컬처, 엔터테인먼트, 푸드, 테크놀러지의 5개의 컨셉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뉴얼 전 시부야를 대표하는 쇼핑 시설에서 복



시부야 스카이의 옥상 정원



새롭게 열린 시부야 파르크



포켓몬 센터 시부야



닌텐도 도쿄



옥상 정원

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6층의 CYBERSPACE SHIBUYA에는 닌텐도 도쿄, 포켓몬 센터 시부야 등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관련 시설이 모여 서브 컬처의 발신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시부야 후쿠라스

시부야 후쿠라스(渋谷フクラス)는 시부야역 바로 앞에 있는 지상 19층, 지하 3층의 건물로 다양한 상업 시설과 오피

스로 나뉜다. 1층은 시부야역과 바로 연결되는 버스터미널이 있으며 2층부터 상업 시설은 도쿄 플라자에서 관리하고 있다. 트렌디하면서도 일본 전통이 녹아있는 다양한 브랜드 상점이 많이 입점해 있다. 5층은 인공지능 로봇 페퍼가接客하는 재미있는 카페가 있으며 최상층에는 시부야의 시원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다.



시부야 후쿠라스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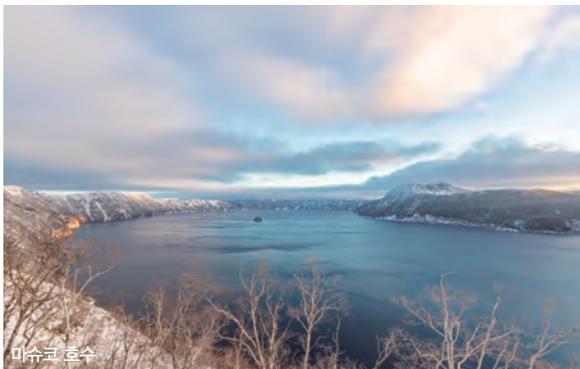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부야, 시부야 스카램블 수퀘어(중앙), 시부야 스트림(오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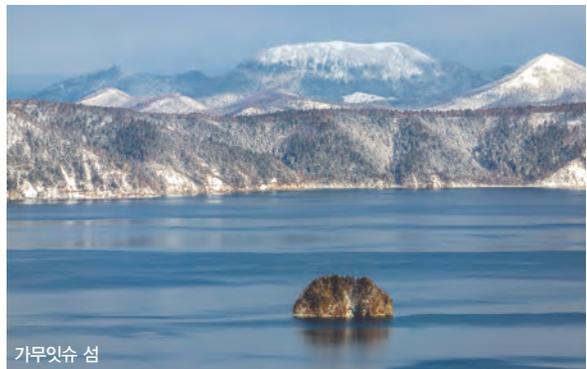
닛샤로코 호수

## 아름다운 호수 위의 쉼터 홋카이도 미치노에키

때 묻지 않은 자연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홋카이도(北海道). 홋카이도의 자연은 지역, 계절 할 것 없이 다양한 표정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83,456km<sup>2</sup>로 일본 총면적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광대하다. (한국 남한의 3/4 정도 크기) 가지각색의 꽃들로 물드는 구릉, 석양이 아름다운 해안선, 아름다운 호수, 하얀 증기를 뿜어내는 화산과 온천 등 넓은 면적만큼 다양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미슈코 호수



가무잇슈 섬



호숫가의 숲에서 만난 사슴



스니유 온천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대중교통으로는 찾기 힘든 곳이 많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렌터카 요금도 일본 본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홋카이도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달리면서 각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산품과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미치노에키(휴게소)가 있어 관광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대중교통으로는 쉽게 찾아갈 수 없는 홋카이도 동부의 신비한 호수인 마슈코(摩周湖)와 굿샤로코(屈斜路湖)를 방문하면서 인기 있는 미치노에키도 함께 찾아가 보았다.

### 마슈코 호수

마슈코 호수는 일본에서 가장 맑은 호수이며, 세계적으로도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 이어 두 번째다. 둘레 길이가 약 20km, 면적이 약 19km<sup>2</sup>인 칼데라 호수로, 안개의 호수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파란 하늘 아래 마슈코 호수를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맑은 날씨에 보는 마슈코 호수의 푸른 빛은 마슈 블루(摩周ブルー)라 불릴 만큼 아름답다. 호수 가운데 떠 있는 가무잇슈(カムイッシュ) 섬은 오래 전 전쟁에서 패한 한 부족의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피난을 가다 잃어버리고, 마슈코 호수에서 피로에 지쳐 손자를



굿샤로코 호수의 백조



굿샤로코 호수 스나유 휴게소



구룟토 파노라마 비호로도우게 미치노에키

기다리다 섬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마슈코 호수에 누군가 찾아오면 손자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비 또는 눈과 안개가 된다고 한다.

**굿샤로코 호수**

굿샤로코 호수는 일본 최대급 칼데라 호수로 둘레 길이 약 57km, 약 79km<sup>2</sup>의 면적으로 호수 가운데 작은 섬이 떠 있다. 이 섬은 둘레 길이가 12km이며 담수호에 있는 섬으로는 일본에서 제일 큰 섬이다. 호수가 넓어 바다와 같은 풍경을 가지며 다양한 해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호수가 상당히 넓어 곳곳에 노천 온천을 찾을 수 있다. 스나유(砂湯) 주변에서는 땅을 파면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오를 정도로 온천이 많다. 백조가 모여드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호수와 섬과 함께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호수 위의 섬터 미치노에키**

마슈코 호수와 굿샤로코 호수는 인접해 있어 전망대와 미

치노에키에 차를 주차하고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마슈코 호수에는 3곳의 전망대가 있으며 가장 가까운 제1 전망대에 주차장과 미치노에키가 있다. 굿샤로코 호수는 호수가 넓어 다양한 장소에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스나유 노천온천과 비호로 도우게(美幌峠) 고개를 찾는 것이 좋다. 비호로 도우게는 홋카이도 아바시리의 비호로와 데시카가정을 연결하는 표고 525m 고개로 구룟토 파노라마 비호로도우게(ぐるっとパノラマ美幌峠)라는 전망대 겸 미치노에키가 설치되어 있다.

미치노에키에서는 굿샤로코 호수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홋카이도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기념품을 살 수 있다. 비호로 지역은 감자로 유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의 감자와 감자를 이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미치노에키 라멘(시오리멘)



비호로 지역의 특산품 감자 품종



아게이모와 감자 고로케



비호로 지역의 감자



비호로 지역을 응원하는 일본 컬링 대표

감자를 핫도그처럼 튀긴 아게이모(あげいも)가 유명하다. 다양한 요리와 홋카이도의 따뜻한 라면도 마련되어 있다. 또 홋카이도는 유제품이 유명하기 때문에 맛있는 우유와 이를 사용한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도 별미인데 미치노에키마다 각각 다른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 컬링 대표팀원의 출신지로서 미치노에키를 방문한 사람에게 이 지역을 홍보하고 응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미치노에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ichi-no-eki.jp/>



비호로 도우게의 일출



비호로 도우게 전망대

## 미치노에키란?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 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 시설, 체험 시설, 지역 부흥 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 시설을 말한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고,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 있는 곳의 휴게 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를 시작해서 1993년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 기능(Refresh), 도로 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rmation), 지역 특산품, 관광 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 활성화 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54곳이 등록되어 있다. (2019년 4월 기준)

##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

### 全国モデル道の駅

일본에서는 미치노에키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미치노에키 연결회(道の駅連絡会)라는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며 미치노에키에 관한 정보 교환, 상호 연계 등을 통해 미치노에키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을 9개의 블록(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간토(関東), 호쿠리쿠(北陸), 주부(中部), 긴키(近畿), 주고쿠(中国), 시코쿠(四国), 규슈·오кина와(九州·沖縄))으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 세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미치노에키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 일본 전국에서 지역의 매력을 잘 전달하면서 운영, 관리가 잘 되는 6곳의 미치노에키를 선정하여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全国モデル道の駅)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교토 벚꽃

## 벚꽃을 따라 교토를 걷다

과거 일본의 수도이자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교토, 둘러보기 좋은 시기를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벚꽃 가득한 화사한 봄의 교토, 파릇파릇한 녹색의 초여름의 교토, 단풍으로 색색이 물든 가을의 교토, 눈이 내려 무채색이 된 겨울의 교토, 사계절 모두 다른 매력이 있어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봄의 교토가 아닐까 한다. 1~2주 정도로 짧지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봄의 교토, 벚꽃이 흩날리는 교토가 마음을 움직인다.

교토 벚꽃의 개화는 보통 3월 말부터 시작된다. 교토 남부에서부터 피어 북쪽으로 서서히 올라오며 4월 초에 대부분 만개한다. 벚꽃은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가장 아름답는데 보통 북부는 4월 초, 중순에 벚꽃이 떨어진다. 이 시기의 교토는 어디를 가도 아름답게 핀 벚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명소가 철학의 길(哲学の道), 가모가와(鴨川) 강변, 교토부립 식물원(京都市立植物園, 1924~),



가모가와 강변



벚꽃을 즐기는 교토 시민



교토부립식물원

아라시야마(嵐山), 교토 시조(四條), 기온(祇園), 기요미즈데라(清水寺) 등이 있다. 거리 곳곳에 벚꽃 나무가 많아 걷다 보면 어느새 벚꽃 잎이 옷이나 머리에 붙어 있을 정도다.

### 가모가와 강변

교토 시내를 가로지르는 가모가와강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벚꽃을 즐길 수 있다. 강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교토의 관광명소와도 바로 연결되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교토 북부 게이한(京阪) 열차와 에이잔(叡山) 노면 열차의 종점인 데마치야나기(出町柳)역 주변은 가모가와 강과 다카노가와(高野川)강이 만나 가모가와를 이루는 곳으로 강변 공원이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산책길에는 수많은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강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일본 최초의 공립 식물원인 교토부립식물원이 있으며 이곳에는 24만 헥타르의 넓은 부지에 12,000종, 12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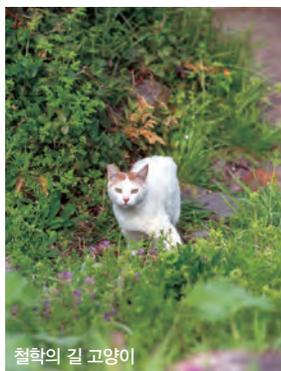
루의 식물로 화단과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다양한 종류의 벚꽃을 관찰할 수 있다.

### 철학의 길

교토 시내의 난젠지(南禅寺)부터 긴카쿠지(銀閣寺)까지의 작은 길로 비와코(琵琶湖) 수로를 따라 양옆으로 수많은 벚나무가 심어져 있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가 이 길을 산책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여 사색의 작은 길(思索の小径)로 불린다. 1972년부터 철학의 길(哲学の道)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철학의 길 곳곳에는 예쁜 카페와 상점이 많으며 길 중간에는 고양이 모이 있는 작은 쉼터가 있다. 철학의 길 시작과 끝의 난젠지와 긴카쿠지도 벚꽃의 명소로 유명하며 난젠지 옆의 게이게 인클라인(蹴上インクライン)에는 철로 위로 벚꽃 터널이 만들어진다. 인클라인은 경사진 곳에 레일을 깔고 동력으로 짐이나 차량 등을 오르내리게 하는 운반 장치로 1891년부터 1948년까지 사용되다 지금은 일본의 사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철학의 길 수로



철학의 길 고양이



철학의 길



야사카 신사



마루야마 공원



이시베코지



이시베코지 골목

### 히가시아마

히가시아마(東山)는 교토 시내 동쪽의 작은 산으로 다양한 관광명소가 모여 있는 벚꽃의 명소이기도 하다. 한 시간 정도 언덕을 오르며 벚꽃과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야사카 신사(八坂神社)를 시작으로 마루야마 공원(丸山公園), 네네노미치(ねねの道), 이시베코지(磯部小路), 니넨자카(二寧坂), 산넨자카(産寧坂)를 지나 기요미즈데라(清水寺)에 이른다. 벚꽃과 함께 절과 상점, 골목

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으며, 저녁이 되면 조명이 들어와 야경을 즐기기도 좋다.

### 기온

기온(祇園)은 교토의 가장 변화한 지역으로 가모가와(鴨川)강 지류인 다카세가와(高瀬川)강 주변에 벚나무가 많이 모여 있다. 수많은 상점과 함께 만들어내는 풍경이 독특하며 수로를 따라 강물이 흐르는 기온시라카와(祇園白



네네노미치



기온시라카와



기요미즈데라 야간 조명

川)는 웨딩 촬영의 명소다. 벚꽃 시즌에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웨딩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 있는 벚꽃 명소다. 저녁이 되면 폰토정(先斗町)의 골목 골목에 불을 밝혀 24시간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 있다.



밤 벚꽃을 즐기는 시민들



다카세강 강변 상점



가모가와강 산책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金沢21世紀美術館, 가나자와, 2004)

## 공원 같은 건축을 설계하는 일본의 건축 그룹 SANAA Sejima and Nishizawa and Associates



니시자와 류에(좌) 세지마 가즈요(우) ©Takashi Okamoto

SANAA는 일본의 건축가인 세지마 가즈요(妹島和世), 니시자와 류에(西沢立衛)가 만든 건축 그룹으로 각자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 해석이 담긴 건축 작품을 만들고 있다.

SANAA를 설립한 세지마 가즈요는 일본의 건축가 기쿠타케 기요노리(菊竹清訓)의 작품인 스카이하우스(스카이 하우스)를 보며 건축가의 꿈을 키웠다. 이후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기쿠타케의 제자이며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인 이토 도요오(伊東豊雄) 건축사무소에 들어가 실력을 쌓았다. 이후 독립하여 세지마 가즈요 건축설계 사무소를 설립했으며(1987년), 회사의 일원이던 니시자와 류에와 공

동으로 SANAA를 설립하여(1995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2010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았다. 스승이자 선배인 이토 도요오는 이보다 늦은 2013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는다. 세지마와 니시자와는 각각 다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SANAA 활동을 하고 있으며 후쿠야 쇼코(福屋 粧子), 기쿠치 히로시(菊地宏), 곤도 데쓰오(近藤哲雄), 마쓰오카 사토시(松岡聡), 이시가미 준야(石上純也) 등 일본의 유명 건축가가 SANAA에서 활동했다.

SANAA 건축의 특징은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세지마와 니시자와는 다양한 연령의 많은 사람이 여러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각자 자신의 공간을 만들지만 서로 개방되고 연결되어 있는 공원 같은 건축을 생각한다. 또 건축과 주변과의 연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이는 대표작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金沢21世紀美術館, 가나자와, 2004)에 잘 표현되어 있다. 외부는 원형으로 단순하며 깔끔하지만, 내부는 미술관으로서의 충실한 기능을 확보한 공간을 제공, 표현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기본으



구마노고도 나카헤치 미술관(熊野古道なかへち美術館, 와카야마, 1996)

로 삼으면서 주변과 어울림, 단순함 속에서 복잡함과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구마노고도 나카헤치 미술관(熊野古道なかへち美術館, 와카야마, 1996), 고가소고 공원(古河総合公園, 이바라키, 1998), 디올 오모테산도(ディオール表参道, 도쿄, 2003), 줄버레인 스쿨(ツォルフエアアイン・スクール,



고가소고 공원(古河総合公園, 이바라키, 1998) ©W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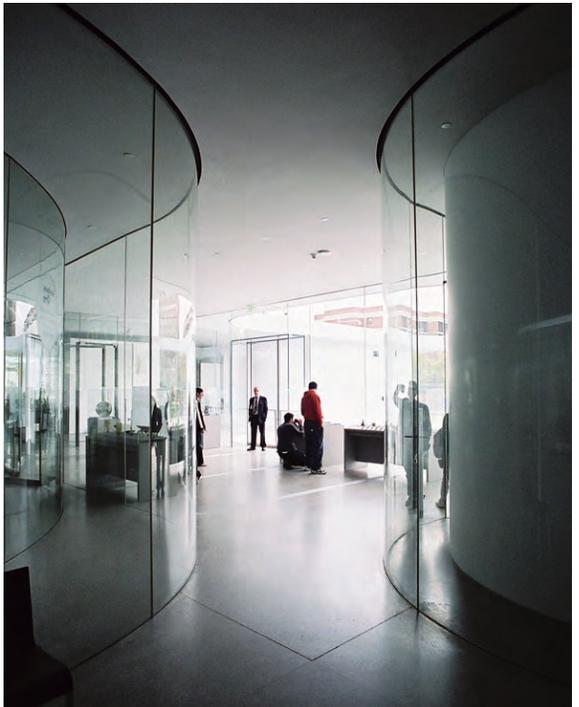
디올 오모테산도(ディオール表参道, 도쿄, 2003) ©Kakidai



뉴욕 신현대미술관(뉴·뮤지엄·オブ·コンテンポラリー·아트, 미국, 2007년) ©Nick-D



졸버레인 스쿨(ツォルフェアイン·스쿨, 독일, 2006년) ©michael hoefner



톨레도미술관 유리 전시관( Toledo美術館ガラスパビリオン, 미국, 2006) ©Adam C Nelson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롤렉스 교육센터(ローザンヌ連邦工科大学ラーニングセンター, 스위스, 2010) ©Hpschaefer



루브르 랑스 미술관(루ーヴル・ランス, 프랑스, 2012) ©Julien Lanoo

독일, 2006년), 톨레도미술관 유리 전시관(トレド美術館ガラスパビリオン, 미국, 2006), 뉴욕 신현대미술관(뉴욕·뮤지엄·オブ·コンテンポラリー·아트, 미국, 2007년),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롤렉스 교육센터(ローザンヌ連邦工科大学ラーニングセンター, 스위스, 2010), 루브르 랑스 미술관(루ーヴル・ラン스, 프랑스, 2012), 비트라 캠퍼스 공장(ヴィトラ・ファクトリー, 독일, 2012) 등이 있으며 프리츠커 건축상, 일본건축학회상 등 다양한 상도 받았다.



비트라 캠퍼스 공장(ヴィトラ・ファクトリー, 독일,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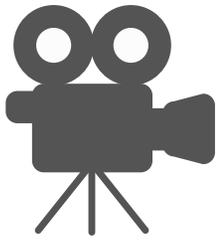
## 프리츠커 건축상

Pritzker Architecture Prize

프리츠커 건축상은 매년 하얏트 재단이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79년 제이 프리츠커(Jay A. Pritzker)가 만들고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건축상 중 하나다. 이 상은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주어지며, 건축적 작업을 이루기 위해 들인 양질의 혁신성과 건축적 사고의 훌륭함이 이 상의 기준이 된다. 건설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 요건이다.



다카라가이케역



교토의 소중한 풍경을 담은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다카라가이케역 주변 풍경



다카라가이케역 주변 풍경



에이잔 열차 노선



에이잔 열차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교토, 교토를 무대로 한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ぼくは明日、昨日のきみとデートする)'의 촬영지를 찾았다. 영화는 다른 시간을 사는 20대 대학생 커플의 로맨스 영화로서 관광지로 유명한 교토보다 교토 북부의 작은 마을, 교토의 숨어 있는 소소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주로 등장한다. 영화는 전차 안에서의 한 장면으로 시작한다. 전차는 교토 북부를 다니는 노면 전차인 에이잔 전차(叡山電鉄)다. 1985년 개통한 전차로서 교토 북부의 산악 지역과 관광명소인 구라마(鞍馬), 히에이잔(比叡山)을 연결하며,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구간이 많아 단풍 전차로도 불린다. 영화에 등장한 역은 다카라가이케(宝ヶ池駅)역으로 에이잔

열차 노선이 나뉘는 환승역이다. 주인공의 만남이 시작된 작은 무인역으로 주변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주택가로 소소한 교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에이잔 전차의 종점인 데마치야나기(出町柳駅)역에서 다카라가이케 구간은 교토의 주택가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교토의 한적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교토예술대학(京都芸術大学)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젊은 학생을 만날 수 있다. 데마치야나기역 바로 옆에는 교토를 가로지르며 교토 시민의 쉼터로 사랑받는 가모가와(鴨川)강이 있으며 이 주변 역시 영화의 한 장면에 등장한다.

다카라가이케역 서쪽에는 다카라가이케 공원(宝ヶ池公園)이 있는데, 이곳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데이트를 즐





다카라기이케 공원



다카라기이케 공원 호수



호수의 정자



산조 다리



산조 아케이드 상점거리

기던 곳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호수가 있다. 공원은 숲이 많고 한 바퀴를 둘러보려면 1시간이 걸릴 정도로 넓다. 호숫가 주변은 영화 속 풍경과 같으며 영화 속의 작은 정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다시 만난 주인공은 약속 장소로 정한 산조(三條) 다리를 지나 함께 거닐던 산조의 아케이드 상점가를 걷는다. 산조의 아케이드 상점가인 데라마치 상점가(寺町通商店街)는 교토에서 가장 변화한 상점거리 중 하나로 다양한 상점과 식당이 모여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영화에서 유일한 교토의 관광명소인 후시미이나리(伏見稲荷)다. 가장 유명한 교토의 관광지로서 신사 입구에 있는 문 역할을 하는 도리이(鳥居)가 만개 이상 세워져 있다. 연속되는 붉은 색의 도리이가 만





후시미나리



많은 작품의 배경이 된 후시미나리

들어 내는 풍경이 독특하며, 영화 게이샤의 추억 등 여러 작품의 배경지로 자주 등장하던 곳으로 영화 속 주인공이 자신들의 끝없는 시간과 반복되는 만남을 상징하듯 이곳을 걷는다. 영화 속 배경지인 도쿄의 다양한 풍경과 만나며 교토를 거닐어 보자.



###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ぼくは明日、昨日のきみとデートする, 2016)는 교토를 배경으로 미대에 다니는 20살 대학생 미나미야마 다카토시와 미용학교에 다니는 20살 대학생 후쿠주 에미의 40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영화다. 천사는 기적을 갈망한다(天使は奇跡を希う), 내가 아가씨 학교에 '서민 샘플'로 납치당한 사건(俺がお嬢様学校に「庶民サンプル」として拉致られた件) 등으로 유명한 나나스키 다카후미(七月隆文)의 로맨스 소설이 원작으로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영화는 2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기록했으며, 한국에서는 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되어 2017년 10월 정식 개봉했다. 일본의 인기 배우인 후쿠시 소타(福士蒼汰), 고마즈 나나(小松菜奈)가 출연했다.

일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촬영 장소 가이드  
<http://loca.ash.jp/>





## 초여름 밥상



연어라고 하면 가을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 6월부터 잡힌다. 현재, 양식 연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양식 국가로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칠레, 캐나다 가 있다. 산지가 어디든 연어는 몸에 좋은 지방산이 많으며,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연어 덮밥을 만들 때 필요한 약간의 요령을 말하자면, 생선 살의 두께는 취향에 따라 잘라도 좋지만, 5mm 정도로 두껍지 않은 편이 좋다. 그 이유는 앞서도 말했듯이 연어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두껍게 썰면 간장에 절여도 속까지 간이 배지 않고, 밥을 싸 먹기에도 불편하므로 이 두께가 적당하다.

단, 이번에 소개하는 ‘연어 덮밥’에 한해서만 이 두께가

적당하고, 많은 가게에서는 두툼하게 저민 연어를 쓰고 있다.

또 한가지 요령은 연어를 간장에 절일 때, 달걀노른자도 함께 넣었다가 밥에 올려 먹으면 보다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다. 입맛을 산뜻하게 하기 위해, 코울슬로에 레몬즙을 좀 더 많이 넣어도 좋다. 또 닭가슴살 튀김 속 재료는 피망을 사용했지만, 송이버섯이나 강낭콩, 오크라(야채의 일종) 등을 넣어도 어울린다.

10월까지의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집필** 마츠나가 분고(松永文吾)

**협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 연어덮밥



### 【재료】

연어 100g / 차조기잎 1장  
고추냉이 적당량

### (연어장)

진간장 25cc / 청주 15cc  
미림 25cc / 양조간장 5cc

### 【조리법】

- ①연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②연어장을 만든다.
- ③연어장 속에 10분 정도 담근다.
- ③밥 위에 연어를 올리고  
고추냉이를 곁들인다.



## 닭가슴살 피망말이 튀김

###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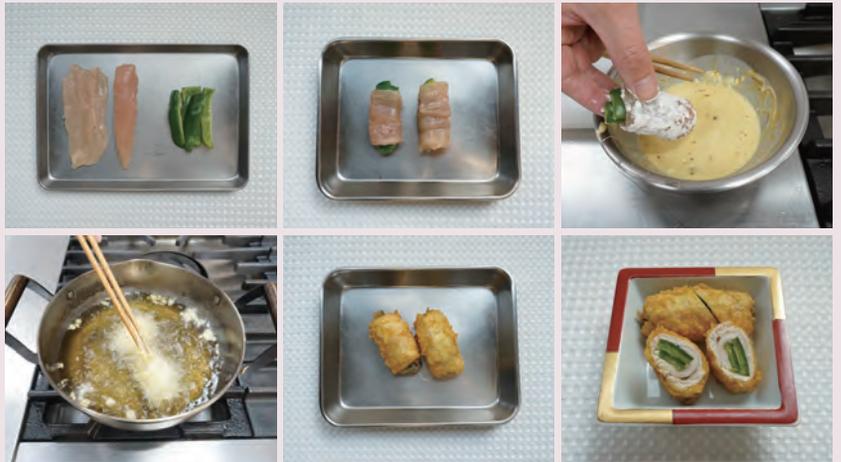
닭가슴살 2장 / 피망 ½개 / 소금, 후추 조금

### (튀김옷)

튀김가루 50g / 물 100cc / 카레가루 3g

### 【조리법】

- ①닭가슴살은 힘줄을 제거하고, 가운데를 갈라서 피망을 말 수 있게 넓게 펴준다.
- ②피망은 4등분한다.
- ③닭가슴살을 펼쳐서 소금, 후추를 뿌리고 피망을 올려서 만든다.
- ④튀김옷을 입힌다.
- ⑤160℃ 기름에서 튀긴다.



## 코울슬로



### 【재료】

양배추 80g / 당근 10g  
무 20g / 소금 8g / 물 400cc  
마요네즈 15g / 레몬즙 5cc / 설탕 3g

### 【조리법】

- ①양배추, 당근, 무는 먹기 좋게 채 썬다.
- ②채썬 야채를 소금물에 10분 정도 절인다.
- ③소금물에 절인 야채는 체에 발친 후,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한다.  
짠맛이 강하면 여러 번 물에 씻어낸다.
- ④야채를 그릇에 담고 마요네즈, 레몬즙, 설탕으로 맛을 낸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2015년 처음 모집을 시작한 ‘일본문화원 리포터’. 이들은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SNS 등을 통해 알리는 자원봉사자다. 2019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일본문화원 리포터(5기)는 약 7개월간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올 2월, 활동을 마친 이들에게 지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소감을 들어보았다.



## 일본문화원 리포터 5기 활동을 마치며

이상명 연세대학교 동양사학 문화인류학과

기말고사 마지막 보고서의 초고를 마치고 잠시 해방감을 느끼며 사이트를 검색하다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일본문화원 리포터 모집을 본 것이 리포터 활동의 시작이다. 동양사학과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일본’의 ‘문화’와 ‘리포터’ 그리고 일본문화 체험 및 취재 차원에서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보잘것없는 글로 나를 어필하며 리포터에 지원했다.

가장 한국적인 복층이 있는 안국역 인근의 문화원으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일본다운 내부 인테리어와 일본인 직원이 근무하는 걸 보고 새삼 놀랐던 기억이 난다. 면접을 마치고 공공기관에 소속한 리포터가 되었지만 그 무게가 실감 나지는 않았다. 5기 일본문화원 리포터 친구를 만나서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그들의 대외활동과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다들 편견 없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매월 교류회에서 만나 서로의 기사를 읽고 웃고 떠들면서 어느 정도 정을 쌓은 덕분인지, 작년 9월 말의 일본 방문은 양국 관계가 삐걱거리는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염려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방문한 일본은 내게 큰 배움이었다.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다 잘 짜인 여정으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담긴 메시지가 여행으로 지쳐버린 내게 영감과 활력을 주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일본어를 잘하는 리포터 친구가 잘 이끌어 주고 일본 친구들과 홈스테이 호스트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까지 서로를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올해 초 리포터로서 활동을 마치고 모두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약 7개월간의 활동과 만남, 여행, 콘텐츠 제작은 끝났지만, 리포터 활동이 이어준 인연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100개가 넘어가는 카톡방이 그걸 증명하는 듯하다. 좋은 기사를 써준 리포터와 단장님을 포함한 일본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일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모두 감사합니다! (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전하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일본문화 소식은 계속해서 일본문화원 SNS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j.munwhawon/>
- Blog <https://blog.naver.com/bunkain>



## 〈일본의 새소식〉 설문조사 협력 의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발행하는 〈일본의 새소식〉을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호 〈일본의 새소식〉은 어떠셨나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본 계간지가 일본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분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더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설문조사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 ‘흥미로웠다’라는 의견부터 ‘다음에는 OO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는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기탄없는 의견까지 폭넓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일본의 새소식〉 코너 설문지(<https://forms.gle/nboA28yYiZcoq66Q9>)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STOP!**  
感染拡大  
— COVID19 —

가깝고도 먼 이혼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주황우물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游学)보고서

하늘길 아닌 바닷길을 이용해서 일본에 가는 것은 몇 년 만인가! 별들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오색 찬란한 부산대교를 뒤로하는 밤 배에 몸을 실었다.



그 옛날 조선통신사가 지나갔을 이 길.

부산(釜山)과 시모노세키(下関)를 잇는 부관(釜関)훼리를 타고 배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 새벽에 도착한 곳은 아마구치 시모노세키항. 항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우리는 몸을 실었다.



아마구치 원데이 버스 투어.

- 부릉부릉
- 시모노세키 여객터미널
- ↕
- 쓰노시마 대교(角島大橋)
- ↕
- 모토노스미이나리 신사(元乃隅稻成神社)
- ↕
- 센자키친(センザキッチン)
- ↕
- 아키요시다이 전망대(秋吉台展望台)
- ↕
- 루리코지 5층탑(瑠璃光寺5重塔)
- ↕
- 유다 온천(湯田温泉)
- 하루 동안 아마구치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장점!

아마구치현의 고즈넉한 농촌풍경을 지나 우리가 도착한 곳은 쓰노시마 섬까지 총 길이 2km를 잇는 쓰노시마 대교. 레이스처럼 밀려드는 하얀 파도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 그 자체였다.



푸르른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져 마음이 후련~!

1955년에 흰여우의 계시를 받아 창건되었다는 모토노스미이나리 신사는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바다의 웅장함을 배경으로 123개의 붉은 도리이 기둥이 줄지어 있는 것이 포인트. 이곳은 연(縁)을 잇는 신사로 저 도리이 기둥 위에 설치된  
◦ 함에 5엔짜리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면 그 인연이 이어진다고 한다.



이뤄져라! 아임!

우와 애 쓴다

나가토시 센자키(仙崎)의 부엌과도 같은 미치노에키 '센자키친'에 도착했다.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니 나는 개인적으로 미치노에키를 참 좋아한다. 부엌에 왔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



미치노에키 센자키친의 심볼마크

이곳은 \*가네코 미스즈가 태어나고 사랑한 마을.

동요로 태어난 미스즈 준수건 GET!!

\*5엔(고엔 5円) - 일본어로 '인연'을 뜻함.

\*가네코 미스즈(金子みすゞ 1903-1930) 일본의 동요시인.

눈 앞에 펼쳐진 이 황량한 들판은 일본 최대 카르스트 대지 아키요시다이 국립공원. 이곳의 석회암 동굴은 일본 최대규모로 길이가 무려 10km로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곳곳의 바위들이 마치 초원에서 풀을 뜯는 하얀 양 떼 같아~

루리코지 사원은 고대 일본 씨족의 하나인 오우치(大内) 가문의 전성기 문화를 전승한 사찰로 최고걸작인 5층 목탑은 국보로도 지정되었다.



왠지 낯설지 않은 우아한 자태야~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우리는 유다온천에 들려 가벼운 족욕으로 다리의 피곤함을 풀었다. 밤 배에 올라 새벽에 눈을 뜨니 어느새 부산.



오오~ 돼지국밥을 즐기는 일본인도 있네!

돼지국밥 먹으러 당일로 가볍게 부산에 오는 일본 사람도 있겠어. 오늘 여행 한번 잘했네~

美味しい~

끄덕 끄덕

하하호호~